

동반성장 평가대상 기업수 확대

동반위, 제조업에서 서비스·의료·금융까지 ... 2014년 100사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12월13일 동반성장 평가 대상 기업수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12월13일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함께해야 멀리갑니다!> 주제로 열린 동반성장 위원회 2주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평가대상 대기업 수를 대폭 늘리고 서비스, 의료, 금융 산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56개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을 <우수>·<양호>·<보통>·<개선> 등 4개 등급으로 평가한 동반성장지수를 5월 처음 발표한 바 있다. 당시 6사가 우수 등급을, 7사는 낙제점을 받았다.

2013년 공개될 2012년 동반성장 평가에 포함될 대기업 수는 74개로, 2014년에 2013년 성적표를 받는 대상은 100개로 늘어나며, 평가대상 산업군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의료, 금융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김항식 국무총리,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정운찬 전임 동반성장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송중호 중소기업청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동반성장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2012년 4월 도입한 성과공유제 확인제를 시행한 결과 57사가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2/13>